통권 제 173호

2562
2018
03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이야기
고성제 4

법향기 속으로
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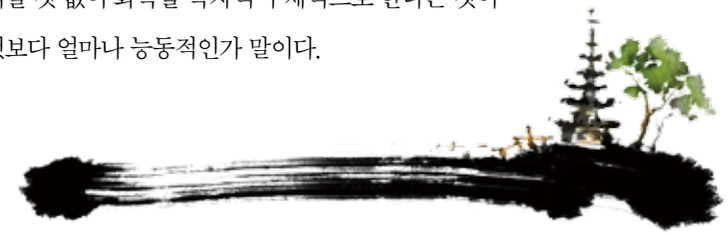
걸망에 담긴 이야기
실금이 간 항아리

불교총지종

종조법설집
제3장 감언편 p.201

요행과 우연은 본래 없다

사람들은 현재에 살면서도 미래에 관심이 크며 미래에 정신을 쏟고 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 산다.
물으면 예외없이 모른다고들 한다.
행운이 닥칠는지, 단명 할는지, 장수 할는지 ,빈천 할는지, 부귀 할는지,
단병 할는지, 건강 할는지, 성공 할는지, 실패 할는지 등등 어찌 될는지 모르고 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짓고 있다.
그러나 또 자기가 지어 놓고도 자기가 모른다.
이는 불교적 인과원칙에서 볼 때 자기가 지은 인을 망각했을 뿐이지
미래의 요행과 우연은 없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남을 원망하거나 의뢰할 것 없이 화복을 독자적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보다 얼마나 능동적인가 말이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목차

계율이야기 _ 44
화를 내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
_ 법경

살다보면 _ 56
동전의 양면
_ 이옥경

디딤돌 _ 64
약속
_ 지현

2562
2018
03

04 **불교이야기** 고성제4 _ 화령
08 **마중물** 향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난다
10 **계율이야기** 화를 내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 _ 법경
16 **살다보면** 동전의 양면 _ 이옥경
22 **향유** 사라진 자전거 _ 우연
28 **십선성취** 불공佛供 _ 덕현
32 **마음의 등불** 매화를 전별하다餞梅花 _ 신호열
35 **산책** 반복되는 생각 _ 김대곤
36 **새이야기** 노랑턱멧새 _ 정옥식
42 **애견 칼럼** 건강한 먹거리 _ 권도형
46 **울림** 모를 때 매 순간이 감동이 된다 _ 법상
50 **법향기 속으로** 희사 _ 법수연
54 **디딤돌** 약속 _ 지현
56 **생활 속 식물이야기** 플라세보 효과도 효과는 효과 _ 이태용
60 **거꾸로 보기** 소년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_ 박현희
64 **설화 속으로** 말세우물 _ 보현
68 **독자코너** 봄, 그리고 초심 _ 경문지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실금이 간 항아리 _ 법일
74 **뜻 바루기** 법사法師 _ 김재동
76 **되짚어보기** 합장合掌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봄은

신동엽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고성제4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오온성고

괴로움의 종류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지만 불교에서의 모든 괴로움은 오음성고五陰盛苦, 혹은 오온성고五蘊盛苦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음이나 오온은 같은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색은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색은 변괴질애變壞質牢로서 변하여 파괴되고 일정한 공간을 점하며 가로막는 성질이 있다고 정의됩니다.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 색입니다. 수는 괴롭고 즐거운 것을 느끼는 작용으로서 마음의 작용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좋거나 싫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좋은 것은 누리려고 하고 싫은 것은 배척하려 합니다.

상은 마음 가운데에서 개념을 형성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것도 정신작용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꽃이다, 물이다, 책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마음에 개념을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행은 마음의 움직임으로서 의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좋고 싫은 것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거나 배척하려는 마음 작용이 행입니다. 식은 분별과 판단, 인식을 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오온은 물질계와 정신계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신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것이 됩니다. 즉, 나라고 생각되는 이 신체와 거기에 따른 느낌, 인식작용, 개념화 등의 마음작용을 아울러 오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오온의 각각에 대해 무상한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색도 무상한 것이고, 수도 무상한 것이며, 상도 무상하고, 행도 무상하며, 식도 무상한 것입니다.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몸이 어제와 같지 않고 나의 생각은 수시로 바뀌어 갑니다. 어제는 좋았던 것이 오늘은 왠지 싫어지고 조금 전에는 싫었던 것이 지금은 좋아집니다. 찰나찰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나'라는 것이 있다고 집착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변화하는 무상한 것으로서 나와 내 것을 고집해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온에 집착한다는 것은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 이것이 일체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운 것이요,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며 실체로서의 나가 아니면 내 것 또한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일러 진실하고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라 한다.

불제자로서 이와 같이 관찰하면 색·수·상·행·식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는 까닭에 즐기지 않게 되며, 즐기지 않는 까닭에 해탈하게 되니, 해탈하면 진실한 지혜가 생겨 자신이 생사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며, 모든 잘못되고 치우친 행위를 여의어 바른 행위와 바른 정진만 하며, 할 일을 다 행해서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게 됨을 안다.

이와 같이 오온이 곧 괴로움의 근원인 것을 바르게 관찰하여 알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해탈하게 되고 바른 지혜가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과 원증회고怨憎會苦(싫은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 애별리고愛別離苦(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구부득고求不得苦(구하려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즉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괴로움) 등의 괴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온에 집착하는 오취온五趣蘊 자체가 다 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오음성고라고도 합니다. 즉 깨닫지 못한 우리의 심신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고에는 세속고世俗苦와 승의고勝義苦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속고는 지옥 아귀 축생의 과보에서 오는 고로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입니다. 그러나 승의고는 천계와 인간계의 고로서, 여기에는 즐거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이곳에 태어나더라도 진정한 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계와 인간계도 복이 다하면 무너지는 무상한 세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의 세계입니다.

천상계와 인간계는 지옥이나 축생계 등에 비하여 즐거움이 많기는 하지만 열반의 세계가 아닌 윤회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복이 다하면 다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 때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천계와 인간계입니다. 중생들은 그러한 것을 모르고 도리어 이러한 세계에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계에 태어난 우리 중생들은 열반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착하며 윤회를 되풀이하는 것이고 따라서 끊임없이 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계와 인간계에 존재하는 괴로움은 일반중생들은 쉽게 느낄 수 없는 미묘한 고이기 때문에 승의고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범부중생의 삶 자체가 고의 덩어리임을 모르고 그것에 탐착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자체가 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고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비로소 열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제苦聖諦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공부의 출발점은 바로 이 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법인과 십이연기 등을 통해서도 항상 고를 강조하여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에서도 고성제를 첫머리에 내세움으로써 불교의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중물

향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난다

법구비유경

어느 때, 부처님이 기사굴산에서 정사로 돌아오시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묵은 종이를 보시고, 비구를 시켜 어떤 종이냐고 물으셨다.

비구는 여쭈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향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가시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을 보시고, 줍게 하여 그것이 어떤 새끼줄이냐고 물으셨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다.
"이것은 생선을 꿰었던 것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든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이를 가까이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 가고,
어리석은 이를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따른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해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를 뿐이니라."

계율이야기

화를 내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 _ 34

진심瞋心

화를 내는 것을 진심瞋心이라 한다. 진瞋자는 눈을 부릅뜬다는 뜻의 글자다. 화를 낼 때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부릅뜨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화를 낸다는 뜻의 진심은 탐심, 치심과 함께 불교에서 삼독심三毒心으로 불리어진다. 삼독심은 불교수행에 있어서 멀리 해야 할 세 가지의 나쁜 마음이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세 가지의 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심과 반대되는 것이 환희심이다. 십선회향에서도 '진심중죄 지심참회 환희공덕 금일성취瞋心重罪 至心懺悔 歡喜功德 今日成就'라 하였다. 진심을 다스리는 방법은 환희심을 내는 데에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오직 환희심으로 진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 받는 장애와 과보는 정말 크다. 『화엄경』에 '보살이 한 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일체의 악행 가운데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 백 천 가지 장애를 받는 까닭이다'라고 하였으며, 『대일경』에서는 '이로움을 손상케 하는 것은 성내는 마음 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한 생각의 성냄으로 인연하여 구지광겁俱胝曠劫에 닦은 선을 모두 불태워 없앤다'고 하였다. 모든 선과 공덕의 뿌리를 자르는 것이 바로 진에심瞋恚心, 화를 내는 것이다.

대체로 화를 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진에심 때문에 악담을 하게 된다. 악담하는 입을 우리는 악구惡口라 한다. 악구로써 악담,

악어를 하게 된다. 절대 해서는 아니 될 업이다.
화를 내는 것도 안되지만, 막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진심嗔心으로 인한 악담惡談은 더 큰 과보를 일으키고 몇 곱절로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를 내는 것도, 막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을 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신언愼言이라 한다.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다.

화를 내고 막말을 하는 것은 바로 나쁜 구업口業을 짓는 것이다. 특히 부처님을 비난하고 불법佛法과 스승을 비방하는 것은 구업 중에 가장 큰 악구업惡口業이다. 그리고 수행 가운데 퇴전하는 말도 삼가해야 한다. 부처님을 의심하거나 그 공덕에 의구심을 갖는 말은 삼보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 '불공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공덕이 없는가' '기도해도 왜 안 되는가' '염송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따른다'하는 등의 말은 참 수행자가 할 언사가 아니다. 여기에다 '부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거나 '절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악구惡口이자 망어妄語이다. 모두 구업을 짓는 언행이다. 사회에서 거짓말은 남을 속이거나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만 불교에서 큰 거짓말은 큰스님 행세를 하는 것이며, 사회에서 악담은 욕설을 하는 것이지만 불교에서 큰 악담은 삼보를 비방하고 퇴전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히 화를 내면서 삼보를 비방하고 막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진사삼보계瞋捨三寶戒'라 한다. 화를 내며 삼보를 버리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계이다.

진사삼보계瞋捨三寶戒

진사삼보계는 어떤 비구니가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이로 인하여 '나는 부처님을 버리겠다. 나는 부처님 법을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출가수행자가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극히 경솔한 것이기 때문에 계를 제정하여 승잔죄로 다루었던 것이다. 그 인연담을『사분율』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육군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들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삼보를 버리겠다. 신행 수도하는 것이 불교뿐이겠는가. 불교 이외에도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이 많이 있어서 범행梵行을 닦을 수 있으므로, 나는 그곳으로 가서 수도하겠다"고 하였다.
비구니들이 이 사실을 비구들에게 고하니 비구들은 다시 부처님께 사뢰었다. 부처님은 곧 비구니들을 불러 확인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를 제정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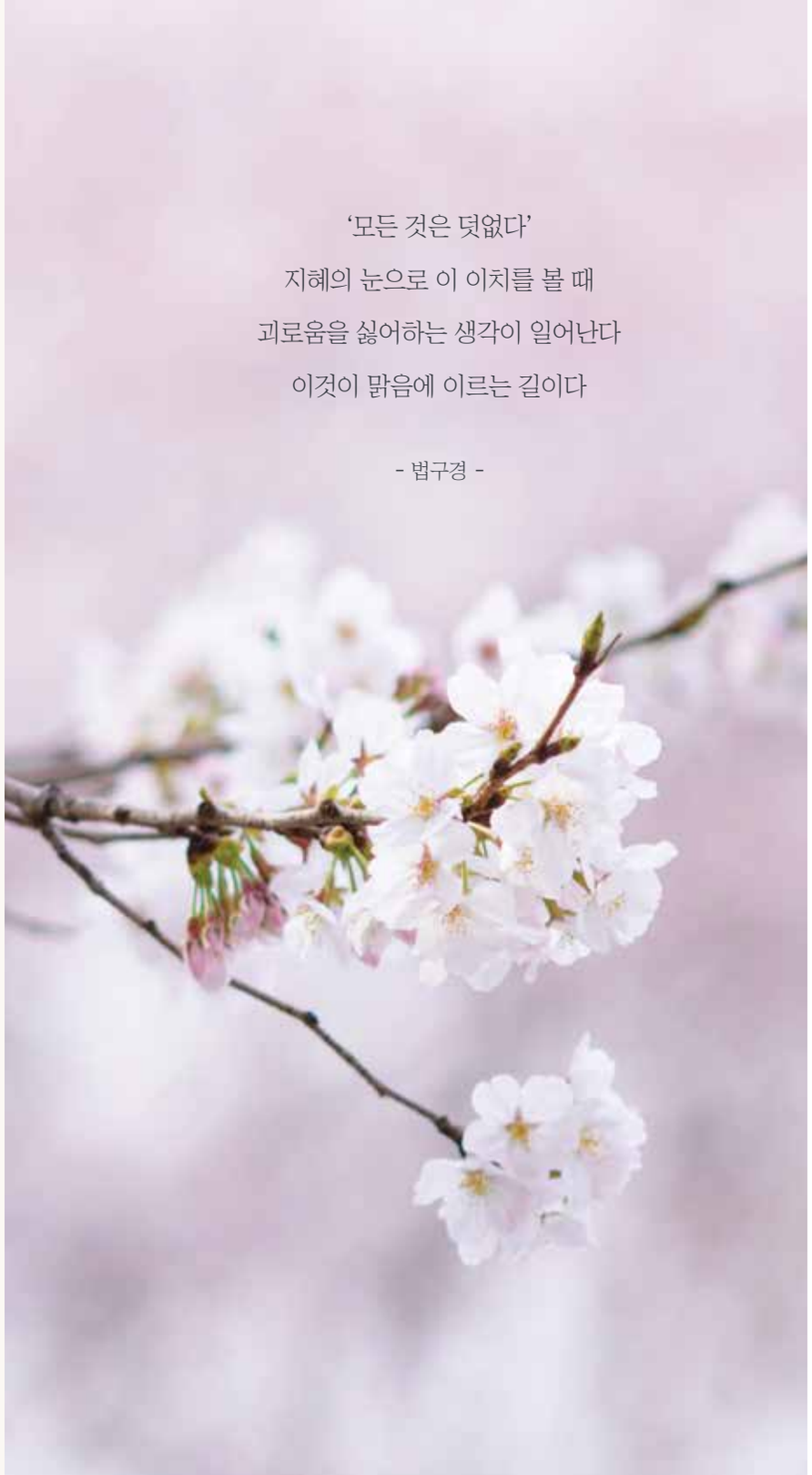
"만약 비구니가 사소한 일로 진심을 내어 즐겁지 아니한 마음으로, '나는 삼보를 버리겠다. 이 세상에 사문석자沙門釋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佛法 외에도 사문과 바라문 등 범행을 닦는 자들이 많으니 우리들도 거기로 가서 범행을 닦겠다'고 하면, 그 비구니에게 '도반이여, 사소한 일로 진심을 내어 나는 삼보를 버리겠다, 수행처가 불교뿐이겠는가,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이 수행하는 곳도 있으니 우리들은 거기 가서 범행을 닦겠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라고 충고해야 한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세 번까지 충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비구니는 승잔죄가 된다"고 하였다.

다른 교도와 사이가 나빠서, 스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원에 나오지 않고 다른 사원으로 가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교도가 있다면, 그 교도는 바로 위의 육군비구니와 다를 바가 없다. 바른 신심이 아니며 올바른 불자佛子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 공부로 삼아야 할 것이다. 퇴전하여 받는 과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에심과 막말, 특히 퇴전하는 말은 멀리 해야 할 것이다.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다음 호에는 다툼으로 감정을 품고 있지 말라는 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 법구경 -



동전의 양면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이번 모임도 낭패다.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식점에서 맛깔스러운 밥을 먹고 좋은 차를 마시며 서너 시간 수다까지 떨었으니 메말랐던 가슴이 촉촉해져야 하련만, 아니다. 허전하기 짝이 없다.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시간에 대한 후회를 곱씹으며 나는 또 다짐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정말로 그만둬야겠다고….

싫은 걸 싫다고 단칼에 잘라내지 못하고 유야무야 끌려 다니는 꼴이라니. 몇 년 동안 되풀이를 했으니 이쯤 되면 의지박약이라는 고질병이 고쳐질 법도 한데, 이 또한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엉거주춤 모임에 적을 둔 채 늘 그래왔듯 자괴감 반 후회 반, 똑같은 다짐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인데도 참 어이가 없다.

한 달에 한 번씩인 모임에 나오는 사람은 열대여섯 명 전후. 남녀가 반반 정도로 40대 초반에서 70대 후반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글을 쓴다는 것이다. 아동문학가도 있고 시인, 수필가, 소설가도 있다. 해마다 동인지도 내고 봄가을로 문학기행도 간다. 회원들의 대소사에 물심양면 힘을 보태기도 하면서 큰 불협화음 없이 잘 지내서 그런지 지역 문단에서도 평판이 괜찮은 편이다.

등단한 지 30여 년이 넘도록 일체의 동인활동을 해 오지 않던 내가 이 모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의보다 타의가 컸다. 유쾌함 가득한 따뜻한 글도 좋았지만 주변을 두루 아우르는 인품이 더없이 존경스러웠던 A 선생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백 번이라도 찍어 보겠다며 권유에 권유를 거듭하는데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어찌나 간곡한지 도저히, 더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A 선생의 말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그동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을 변명 삼아 홀로 뚜벅뚜벅 걸어온 것도 사실은, 좋게 말하면 개성이요 나쁘게 말하면 아집에 가까운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작가들과의 부딪침을 피하고 싶어서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순수한 영혼과 고매한 인품을 지녔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작가도 사람이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작가들도 엉덩이에 뿔이 나고,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깐다. 재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창작의 고통과 외로움을 빙자한 독설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건지도 모른다. 지독한 자기애를 덜어내기 위해서.

고백하자면 나 또한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낯가림이 심해서 누구와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벽을 허무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다. 누가 함부로 내 경계를 넘어오는 것도 싫고, 누군가

의 일에 참견을 하거나 말을 보태는 일도 좋아하지 않는다. 칭찬조차 반가워하지 않는 탓에 까칠하다거나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나 같은 사람은 혼자가 안성맞춤이다. 군중 속의 고독도 싫거니와 나로 인해 분위기가 서먹해지는 것도 큰 민폐다 싶어 이런저런 모임을 한사코 고사해 왔던 내게 가족적인 분위기라니…! 그럴듯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세상, 게다가 글을 쓴다는 행위는 어차피 혼자의 몫인 바. 정 많은 이들이 마음을 나누며 지낸다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고 다독여 주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했다. 넉넉한 품을 지닌 수더분하고 푸근한 이들의 온기에 해묵은 편견이 봄눈 녹듯 스러지고, 마음의 결도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설렘은 첫 모임에서부터 균열의 조짐을 보였다. 늦깎이 신출내기인 줄 알았던 신입회원이 등단 30여 년? 서열로 따지면 1순위?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이라도 뺄 것 같아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도 같다. 살갑던 눈빛도 잠깐, 그들은 곧 삼삼오오 머리를 맞대고 그들만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이 핸드백, 친구들이랑 3년 동안 계 모아서 장만한 명품이에요. 남편한테는 동그라미 두 개 빼고 얘기했어요. 6백 넘는다면 기절하죠."

"그건 싸네. 예단으로 받은 우리 집사람 건 소형차 한 대 값이라던데. 우리 사돈네가 알아주는 부자랍디다. 이 모자도 예단에 온 건데 2백 얼마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디다. 예단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고…. 80 몇 평짜리 신혼집에…."

"아유, 나는 걱정이 한보따리야. 우리 남편 회사에서 연봉 1억에 1년 재계약을 하잔다네. 정년퇴직을 하고도 4년째 계속 쉬지도 못하고, 돈도 돈이지만 남편 건강이 먼저잖아."

"뉴스에 나오는 우리 딸 봤어? 우리 딸이 기자잖아. 동기들은 아직 수습딱지도 못 뗐다는데 우리 딸이 제일 먼저 정식 발령을 받았어. 애가 원래 똑똑하니까 윗사람들이 눈독을 들인다네."

"B 소식 들었어요? 이혼하고 친정으로 갔대요. 남편 의처증이 심한데다가…, B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좀 했나 봐요."

"C 말이에요. 이번에 문학상 받는다면서요? 실력으로 따지면 상 받을 사람들 수두룩한데. 아부가 9단이라는 소문이 정말이에요?"

하늘을 찌르는 과시욕에, 배려에 인색한 아전인수我田引水에, 관심으로 포장한 시기와 질투, 증명되지 않은 뒷담화까지…. 사람 사는 세상에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라지만 그건 갑남을녀甲男乙女 필부필부匹夫匹婦, 한 발 더 나아가 시정잡배들이나 주고받음직한 말이다. 작가라는 사람들이 앞 다투어 목청 높여 내놓을 소리가 아닌 것이다. 인간사에 깊이 천착하되 세파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이자 기본 소양

아니던가.

자신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에 지나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감생심焉敢生心, 더군다나 세간에서 들려오는 작품 평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처럼 지켜야 할 선이 있을 터. 그것의 부재와 맞닥뜨리는 일은 매번 혼란스럽고 매우 견디기 힘들었다.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A 선생에게 탈퇴할 뜻을 비치기도 했는데 안 될 말이란다. 사전 연락 없이 세 번 빠지면 자동 퇴출이라는 규칙을 슬쩍 악용해 모임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A 선생을 비롯한 몇 몇 회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자동 퇴출의 기회마저 박탈(?)했으니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로 명 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임 뒤끝이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곤 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줄 사람이 그리워진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아침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비가 개고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닐 때, 달빛이 시냇물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모두 차마시기 좋은 그 때를 함께할 순박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마침내 자신을 찍고 만다.'는 <숫타니파타>의 가르침처럼, 조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인지도 모른다. 옳다고 내세우는 나의 생각이 그저 나만의 것일 뿐, 깊은 강물의 고요함이 아니라 얕은 개울물의 시끄러움일 수도 있겠다.

문득문득 부끄러워지는 이 시간, 동전의 양면처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어리석음을 벗어나면 아는 것이 모두 자유로워진다'는 <잡아함경>의 말씀 위에다 굴리고 또 굴려 본다.

향유

사라진 자전거

우연(宇硏)
자석사 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아파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한다. 국선도 새벽수련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주위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잠겨 있고, 단지 가로등 불빛만이 고단한 밤을 힘겹게 지키고 있다. 단단히 챙겨 입은 옷 틈새로 차가운 기운이 스물 스물 기어들어온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인접해 있는 중학교 후문 앞에 갔을 때이다. 전방에 어렴풋한 검은 물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자전거였다.

비교적 새것으로 보이는 자전거가 큰 소나무에 묶여져 있었다. 쇠사슬로 몸체가 칭칭 감긴 채 말이다.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은 아직 한참이나 멀었으니, 누군가가 잊고 두고 간 자전거일 것이다. 밤새 주인을 기다렸을 자전거에는 한겨울의 차가운 새벽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다.

사실 후문 앞의 자전거를 발견한 것은 꽤 여러 달 전이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별 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쳤다. 다음날에도 자전거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웃음이 나왔다. 아마 어떤 남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정신없이 뛰어 놀다가 깜박 잊어버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창 놀기 좋아하는 청소년 시절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중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책가방을 놓고 와 크게 당황한 적이 있었다. 나의 예상대로라면, 내일은 틀림없이 자전거를 찾아 갈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자전거는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었다. 쇠사슬에 묶인 자전거는 몸을 조여 오는 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바람이 불어서였는지 며칠 사이 바깥쪽으로 더욱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쇠사슬 또한 핸들 부분으로 쏠려 자전거의 목이라도 조르고 있는 것 같았다.

또 몇 주가 그렇게 지나갔다. 자전거는 처음 보았을 때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처량한 모습으로 변해 갔다. 윤

기도 사라지고 타이어에 바람도 빠졌으며, 쇠사슬이 닿아 있는 부분은 벌겋게 녹까지 쓸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결박되어 있는 자전거가 내 마음 한 구석에 똬리를 틀고 앉아 불편한 심기를 자꾸만 건드리기 시작했다.

결박되어 있는 자전거가 이제는 저 먼 세상으로 가버린 후배를 떠올리게 했다. 췌장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던 후배의 몸에는 이런 저런 줄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코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고무호스가, 팔다리에는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는 모니터의 선과 수액 줄까지 얼켜 마치 쇠사슬에 묶이기라도 한 듯이 보였다.

한살 아래인 후배는 나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줄곧 학창시절을 함께 했다. 그 시절의 그는 새 자전거처럼 튼튼하고 날렵했다. 우리는 등하굣길을 힘껏 달리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가슴이 벅차도록 공을 차기도 했으며, 캠퍼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불안한 미래를 꿈꾸기도 했었다.

후배이면서 친구였고, 친구이면서 후배였던 그와의 인연은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IMF를 맞았고, 갑작스레 회사를 그만 두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 와서는 췌장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마음고생이 심해 보였다. 함께 온천천을 거닐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기필코 병마와 싸워 이겨 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헤어지면서, “형님! 다 낫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소주 한잔 시원하게 합시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매일같이 새벽길에 나설 때면 묶여진 자전거가 섬광처럼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부터 다른 생각은 저 멀리 가버리고 오로지 자전거만이 궁금해졌다. 마음이 바쁘니 걸음도 빨라졌다. 자전거는 엄동설한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옆에는 무심한 가로등이 희미한 불빛을 발하며 졸고 있었다.

자전거는 결박을 당한 채 주인을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 만난 주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덥석 손을 잡아 주던 옛 기억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 주인을 등에 없고 바람처럼 달리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기도 했을 것이다. 주인과 함께라면 이 생명 기꺼이 바칠 것이라 다짐도 하였을 터인데, 그러나 이제는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 애타는 기다림을 주인은 알기나 한 것일까.

후배의 투병생활은 순조롭지가 못했다. 담당의사는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졌고, 얼마 지

나지 않아 부인으로부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는 전갈을 받았다. 병실로 찾아간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병실 한 귀퉁이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후배의 손을 꼭 잡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후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것이 후배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다음날 아침, 부고의 전화를 받았다.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날이 훤하게 밝았다. 후문 앞도 등교하는 학생들로 분주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결박당해 있는 자전거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다. 날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드나드는 학교 후문 앞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비싼 자전거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주인은 물론이고, 쇠사슬에 묶여 나날이 수명을 다해 가는 불쌍한 자전거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 왠지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다. 어쩌면 이 분노는 죽어가는 후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자전거가 있는 곳을 습관처럼 쳐다보니, 그 슬픈 자전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순간, 마음 한 구석을 꽉 막고 있던 답답함이 일시에 뻥 뚫려 나갔다. 그리고 동시에 더없이 마음이 허탈해져 왔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주인이 뒤 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 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혹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중고 폐기물 처리장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도 어쩌겠는가. 나무에 매달려 처참한 고통 속에 생명을 이어 가느니 죽음으로써 영원한 자유를 찾아 간 것이니 말이다.

자전거가 사라지고 얼마나 지났을까, 꿈에 후배가 나타났다. 따뜻한 오후 해질 무렵, 온천천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각기의 모습을 하고 걸어가는 사람, 뛰어 가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로 길을 메우고 있었다. 전날 비가 왔는지 꽤 많은 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물결은 은빛 보석처럼 눈부셨다. 길 한쪽에는 유채꽃이 만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은 발을 멈추고 그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하여 여념이 없었다.

저만치 사람들 속에 후배가 눈에 들어 왔다. 후배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너무나 평화스럽게 올라가고 있었다. 반가운 나머지 소리 내어 이름을 크게 부르자 후배는 힐끗 뒤돌아보고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손짓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사람들 사이로 아스라이 멀어져 갔다.

그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홀가분히 떠나가는 후배를 보면서 비로소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불공佛供

덕현
법천사 전수

불공은 불교에서 불보살에게 공양하는 종교의식을 말합니다. 그 공양供養은 음식 의복 등을 삼보三寶 또는 부모 스승 등에게 공급供給하여 자양資養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불보살에게 올리는 공양물 중 향香·등燈·백미白米·과일果·차茶·꽃을 올리는 것을 육법공양이라 합니다.

이러한 공양이 시대가 흐르면서 공양자의 소원성취를 빌고 기도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공한다고 하면, 대체로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불공을 무엇인가를 바라며 빈다고 여깁니다.

진정한 불공

우리는 소원성취를 위하여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불공을 합니다.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 자식을 위하여, 집안의 안정을 위하여, 좋은 직장, 좋은 인연, 건강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빌면서 불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불공을 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가게 해 달라는 불공, 일은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해탈을 소원한다든가, 게을러서 집에만 있는데 좋은 인연 만나게 해 달라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 달라는 소원은 진정한 불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공과 동시에 행동,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것을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공을 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신행과 불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서원이나 불공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 노력, 정진 등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느 스승님께서 불공은 저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차곡차곡 꾸준히 불공하다보면, 그 힘을 발휘 할 때가 되면, 불공의 인연과 공덕으로 서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불공을 하면서 현재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현재 자신이 무사無事 무난無難하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이며 큰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큰 욕심 없는 것이 불공입니다.

그리고 불공을 통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 닦아진다면, 그런대로 괜찮은 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좋은 인연을 쌓고 쌓아서 자신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간다면, 소원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소원의 성취는 불공과 함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고 자신을 닦는 가운데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닦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 예를 들어 절에서 방석을 깐다든가, 누군가를 위하여 따뜻한 물을 데워 놓는다든가, 사용한 난로를 제자리에 놓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공은 절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공이란 자신을 비우고, 한편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원망심·교만심·악심을 비우고, 선심·자비심·보리심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빈 깡통, 속이 가득 찬 깡통은 요란하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중간하게 반 만 찬 깡통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법입니다. 불공을 제대로 하면,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이 어중간한 깡통이라면 악심이나 욕심 탐욕 등을 덜어내고 선심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공을 하면 소원이 속히 성취될 것입니다. 불공자는 남에게 겸손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상처 또한 주지 않습니다.

매화를 전별하다
餞梅花

신호열(辛鎬烈)
1914~1993
한학자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교수

매화를 전별하다餞梅花

我本恨別人	아본한별인	나는 본시 이별을 한하는 사람이라
爲梅酌一觴	위매작일상	매화를 위하여 한잔 술을 따르노라
倚君碧紗帳	기군벽사장	그대는 푸른 깁사 장막에 의지하여
摻君練素裳	참군련소상	희디흰 명주 치마 움켜쥐고 있구려
古來別非一	고래별비일	예로부터 이별이 한둘이 아니었으나
此別最難忘	차별최난망	이번 헤어짐이 가장 잊기 어렵구나
我與梅同潔	아여매동결	나는 매화와 고결함을 함께하니
爲友相稱當	위우상칭당	벗으로 삼기에 마침 알맞네
君是姑射膚	군시고사부	그대는 막고야 선녀의 피부 같고
我是廣平腸	아시광평장	나의 심장은 광평처럼 굳세어라
呼妻視昵侍	호처시닐시	언제나 가까이 두어 처라 부르고
呼兄視輩行	호형시배행	동료처럼 보아서 형이라 불렀네

『우전선생일고(雨田先生逸稿)』「전매화(餞梅花)」

위의 시는 1991년 봄에 아끼시던 매화 화분의 꽃이 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지은 것이다. 전체 작품은 116구나 되는 장편의 오언고시로 위의 시는 그 첫 도입 부분이다. 매화와 관련된 고사를 거의 다 담은 시이다. 봄마다 피는 매화와의 이별조차 아까워하며 시에 담고자 했던 그 섬세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제목부터 그냥 '이별하다', '보내다'가 아닌 전별한다는 표현을 써서 예를 차려서 자리를 마련해 보낸다는 장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 구절은 자신에 대한 선언이자 시 전체의 주제를 천명한 부분이니, 마치 긴 판소리를 시작하기 전 '두둥' 하고 북소리를 울려 주의를 집중시키는 느낌이다.

벽사장碧紗帳이나 소상素裳은, 당시 매분梅盆 뒤에 수십 개의 푸른 난화분이 있었고 또 그 상에 흰 보자기가 덮여 있었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벽사碧紗나 연소練素란 시어가 자주 쓰이기도 하므로 허투루 놓은 글자가 아니다. 매화의 모습이 푸른 장막에 기대어 흰 명주 치마를 움켜쥐고 떠나려는 여인의 모습 같지 않으냐며 참 매정하다고 탄식하셨다.

또 다섯째 연의 광평장廣平腸은, 당나라 재상이었던 광평공 송경宋璟이 굳센 기질로 철석같은 심장을 지녔다 하여 광평장이라 불렸는데 뜻밖에 감성이 풍부한 「매화부」를 지어 세상을 놀라게 한 일화가 있으므로 가져온 것이다.

한 글자 한 구절이 모두 전거와 사연을 담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매화를 아내 삼아, 벗 삼아 곱디고운 모습을 차마 손도 대지 못하다가 이별에 슬퍼하며 평생의 필력을 기울여 장편의 시를 지어 전별하는 늙은 시인이 눈앞에 선하다.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김성애 수석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산책

반복되는 생각

김대곤
시인

같은 하늘 아래에서 파도는
매일 숨을 멈춘다.
아니 순간순간 죽어지고 있다.

나는 방관자의 떨림으로
지켜보는 목석

파도의 위장된 죽음아래
섬세한 움직임들은 그저 상상의 몫

순간순간 시간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낯설지 않은 반복이
시선을 붙잡는다.

여기서 나는
물이고 파도의 노래

그리고 기억의 한켠을
서서히 적셔가며 찾아가는 반복

죽어지는 파도 앞에서
나는 꿈꾸는 시간을 일으켜 세운다.

노랑턱멧새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매서운 한파가 지나고 요 며칠 따스함이 고여 있는 담벼락 모퉁이엔 오후 내내 고양이가 자리하고 졸고 있다. 오늘도 예상한대로 노랑턱멧새가 노래한다. 노랑턱멧새의 노래 소리는 잘 덖은 우전차의 첫 잔처럼 청아하고 특히 이처럼 봄날에 듣는 소리는 향이 오래간다. 개인적으로는 노랑턱멧새를 볼 땐 늘 죄스러운 맘이 든다.

노랑턱멧새는 등산길에, 혹은 야산 주변을 걷는 일상의 산책길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이다. 흔한 나머지 목적지에 닿기 전 무수히 지나는 정류장처럼 눈길조차 주지 않는 종이지만 이름에도 새겨져 있듯 우아하고 아름다운 새이다. 노랑턱멧새의 학명은 Emberiza eleganse 이다. 여기서 종의 이름에 해당하는 'elegans' 는 다들 알다시피 '우아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그리고 영명은 '턱이 노란 멧새'라는 뜻의 'Yellow-throated Bunting' 이다.

오래 전 겨울, 우연히 미국 학자와 함께 새를 보러 간 적이 있었다. 잠시 흩어졌다 약속 지점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의 얼굴엔 미소가 한가득 이었다. 무슨 좋은 새라도 봤냐고 물었더니 "elegans! elegans!" 라고 외쳤다. 매우 드물고 희귀한 새를 봤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에게 안내해 달라 부탁하여 다다른 지점에서 그가 가리킨 새는 어이없게도 그 흔한 '노랑턱멧새' 였다. '저건 단지 노랑턱멧새 잖아(Yellow-throated Bunting)?' 했더니, 노랑턱멧새가 맞지만 오래도록 보고파 했던 새이고 실제 보니 너무 아름답기에 학명을 빌어 'elegans' 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그 흔한 '노랑턱멧새'를 다시 보게 되었다.

너무도 흔하게 전국 어디서나 쉽게 관찰되기에 '잡새'로 치부되는 노랑턱멧새의 전 세계적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러시아와 미얀마 등 동아시아에 국한되어 분포한다. 분포가 제한적이고 특히, 봄날에 번식을 준비하는 수컷의 노랫소리가 워낙 아름다운 탓에 미국과 유럽의 탐조가들이 너무나 보고파하는 동아시아 조류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숲 가장자리 관목층(키 작은 나무 덤불)에서 주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산의 초입이나 등산로나 인도 주변에서 주로 관찰된다.

몸길이는 약 16cm 정도이며 수컷의 경우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대비되는 얼굴부분이 특징적이다. 멱과 눈위는 노란색이며 멱 아래와 눈 주변 그리고 머리 끝부분은 검은색이다. 몸의 윗면은 연한 갈색 바탕에 짙은 갈색의 무늬가 있으며 아랫면은 다소 밝다. 암컷은 뺨과 멱 아래 그리고 머리 끝은 갈색이며 멱과 눈썹은 옅은 노란빛을 띤다. 5월 경에 관목층 혹은 덤불 아래에 가늘고 마른 풀을 이용하여 둥지를 만들며 옅은 크림색 바탕에 깨알 같은 검은색 반점이 있는 알을 6개 정도 낳는다. 먹이는 주로 식물성으로 씨앗을 먹지만 곤충을 먹기도 하며 번식철 새끼에게는 나비목의 애벌레와 같은 곤충을 주로 먹인다. 번식이 끝나면 무리를 짓고 겨울철이 되면 러시아, 북한 등 북쪽에서 번식한 무리까지 남하하여 개체수는 증가하게 된다. 쑥새와 서식공간이 유사하므로 이들과 혼성군을 이루게 되어 더욱 쉽게 눈에 띄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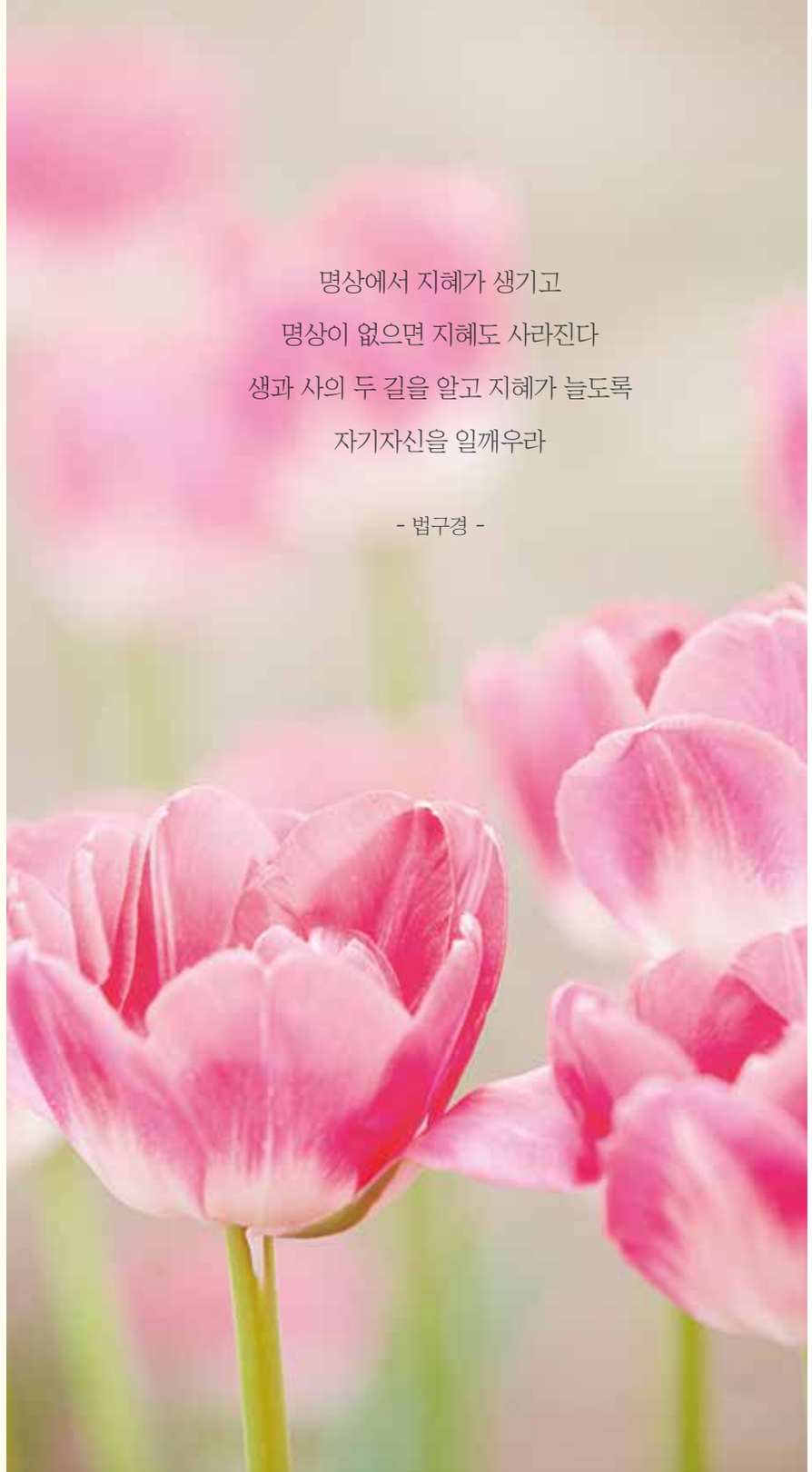
과거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가 한창일 때 이동철인 가을철 혹은 겨울철이 되면 부업으로 이들을 잡기 위해 설치된 새그물을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포장마차에 재료를 공급하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쑥새, 노랑턱멧새, 꼬까참새 등 10,000 마리 이상의 잡새를 냉동고에 보유한 사람도 더러 있었다고 할 정도로 남획이 심했었다. '참새구이' 메뉴는 사라졌고 또한 포획을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농작물의 변화와 산림의 단순화 등 서식지 악화로 인해 이들 잡새의 개체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약 25년 전 대학에서 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후배와 함께 지리산을 올랐다가 인근의 외가댁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다. 작은 골짜기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싸리나무와 찔레나무 등 덤불숲이 많이 있었다. 당연히 노랑턱멧새, 쑥새, 촉새 등 잡새들이 우글거렸고 직접 잡아서 만져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오후 막차를 타고 돌아와야 하기에 서둘러 새그물을 쳤다. 당시에는 그물 작업이 익숙치 않은 탓에 예상보다 설치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이후 십여분의 기다림 끝에 서너마리의 노랑턱멧새와 쑥새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그물에서 새들을 다치지 않게 꺼내려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선배와 함께 그물은 설치해 보았지만 그 이후의 작업은 선배들이 전담했기에 후배와 나 그 누구도 새를 꺼내본 경험이 없었다. 차 시간은 다가오고 진땀을 흘릴수록 더욱 엉켜만 갔다.

결국 새를 제대로 만져보기는커녕 그물을 칼로 찢고서는 노랑턱멧새와 쑥새들을 날려 준 후 급히 짐을 챙겨들고 간신히 차에 올랐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리가 버리고 간 새그물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새들의 주검이 많이 걸린 채로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날의 경험으로 욕심과 무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깨달았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죄스럽다. 요즘도 정기적으로 새를 생포할 기회가 있지만 그날 이후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된다. 후배들에게 그물 작업 요령을 가르칠 때면 '책임감'을 제일 강조한다. 그때마다 "옛날에 지리산에서 어떤 놈들이…"로 시작하는 사례를 들려준다.

내일도 모레도 노랑턱멧새의 청아한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그리고 노랑턱멧새 외에 나의 주변에 내가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어디 더 없나 둘러본다. 아름다운 사람 어디 없나? 다시금 둘러보자.



애견 칼럼

건강한 먹거리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지난번 칼럼은 얼마만큼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려견들의 주식主食은 크게 사료, 화식火食, 생식生食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료는 그 등급에 따라 '오가닉, 홀리스틱, 슈퍼프리미엄, 프리미엄, 노말'로 분류됩니다. 여러 사료회사에서 첨가물과 가공 공정에 따라 각 등급에 맞는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가닉'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순차적으로 등급이 떨어지면서 '노말'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먹고 있는 사료가 어떤 등급인지, 어떤 재료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료 이외의 화식을 직접 만들어서 반려동물에게 급여한다거나, 생식을 급여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영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기 보다는 유동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으로 사료가 더 좋을까요? 화식, 생식이 더 좋을까요?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다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평생 사료만 먹으면서도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반려동물도 많이 있구요. 생식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급여하는가 보다는 어떤 음식이든 급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인 음식섭취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먹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 강아지들이 어떤 것이든 먹고 나서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귓병이 생기지 않는다면 돌멩이를 먹어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실제로 '돌멩이를 먹여도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먹는 음식의 종류를 크게 제한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대신 전제조건이 있죠? '구토, 설사, 피부질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라는 것이죠.

주식主食이외 먹이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간식間食이죠! 간식은 정말 다양하게 급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강아지용 간식부터 비싼 수제간식까지 그리고 보호자님께서 드실 수 있는 음식들(고기류, 야채류, 등)이 간식으로 선택되어 반려동물에게 급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식도 마찬가지로 저는 특별히 제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간식을 많이 먹게 되면서 주식主食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발된다면 반드시 제한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답니다.

'다른 집 강아지는 뭘 먹이니깐 좋다더라', '장이 안 좋을때는 이런 걸 먹이면 괜찮다더라' 등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집 강아지도 좀 더 건강하게 키우려면 '무엇을 먹여야 할까?' '어떤 것을 좀 더 챙겨줘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분명한 것은 주식主食과 간식間食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강아지는 사람처럼 꼭 끼니를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점만 명심해 주신다면 어떤 음식을 먹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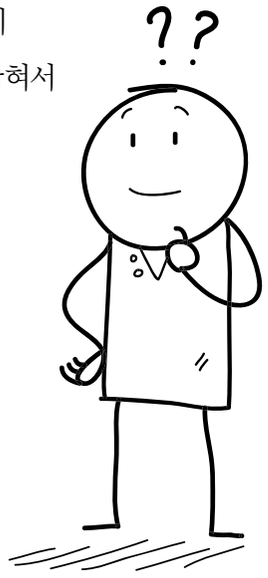
그리고 또 하나!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을 챙겨 먹이신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질병이 유발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아서 급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여나 키우는 반려동물이 특정 음식을 먹은 후 몸에 이상반응을 보인다면 바로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울림

모를 때 매 순간이 감동이 된다

법상
목탁소리 카페 지도법사
원광사 주지



한 절에 오래도록 다니시는 분들을 뵈면, 자기 절에서 했던 방식, 의식, 의례, 기도 등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절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어떤 자기 생각에 집착하기 쉽겠죠. 그러나 사실은 불법은 무유정법無有定法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사로운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정성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지 겉모습이나 의례의식 같은 것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스님이 한 절에 주지로 가셨는데, 그 절의 보살님들이 기존에 해 오던 의식이며, 수행법이며, 방식을 하도 고집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길래 그 생각이 하나의 고집임을 알려드리는데 꼬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예를 들어 천도재를 하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막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염불을 하면서 여러 스님들 모시고 와서 바라춤도 추고하면서 막 그냥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는, 그렇게 해야만 천도가 되느냐? 그렇게 해야만 천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선방에 계시는 스님들이나 요즘의 선원 등에서는 간소하게 음식을 차려 놓고 그저 좌선을 하거나, 혹은 의식을 간소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의 49재가 너무 형식적이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다는 지적들로 인해 스님에 따라서는 간소하고 소박한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엇이 되었든 과거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무조건 다 옳다고 집착하거나, 특정한 방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려면 내가 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상 대신에 '모른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불법 공부의 자세입니다. '안다'하는 순간 벌써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는 건 어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건 안 배우죠. 배우려는 자세가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내가 '안다'라고 하고 들어가면 대충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눈이 올 때, 아이들이,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눈이 와요" 이러면서 막 신나 있을 때, "응, 그래 알았어" 하고 말죠.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도 다 알아, 눈 오면 어떤 건지 안다는 것이죠. 안 봐도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 그 눈이 오는

날의 감동을 두 번 다시 느낄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 첫 마음으로 느낄 때 너무 새롭잖아요. 근데 그 첫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을 평생을 이제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봄이 와도 봄이 오는 줄 모르고,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어도 단풍이 드는 아름다움을 모르고, 눈이 와도 눈 오는 아름다움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생각하면 매사를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관찰하게 됩니다. 분별심을 다 내려놓고 과거에 내가 이미 안다라고 했던 모든 생각과 기억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오직 모르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부모님은 잘 몰라요. 내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타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무한한 보석 같은 것이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모른다고 할 때만 그 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합니다.

모른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집니다. '이뭣고?'는 곧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 어떤 분별망상 없이 '모를 뿐'이 되었을 때 전부를 깨닫게 됩니다.

희사

법수연
화음사 전수

희사

(종조법설집 p.163)

❶ 무상희사無相喜捨는 삼륜체공三輪體空하여 보시를 행한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한 물건을 모르는 까닭에
그 공덕이 허공과 같아서 한량이 없느니라.

❷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그 공덕이 다른 보시보다
백천만배가 더 크고, 세세로 불과가 무량할지니라.
그것은 무소득無所得이며 무상無想인 까닭이니라.

❸ 조석에 어른의 밥을 먼저 담는 것과 같이 수입할 때
제일 먼저 부처님께 바치는 십일희사법을 세우면
가난과 고난은 떠나고 안락과 행복이 오느니라.

❹ 물질시대는 재물을 부정하게 벌고 불의하게 쓰는
두 가지 악이 점점 성해진다. 이것을 다스리자면
먼저 옳게 쓰는 법으로 인도해야 하느니라.

- 후략

만물이 약동하는 3월! 우리도 약동의 에너지에 힘입어 평소의 모습에서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용맹정진하여 3월 월초불공을 맞이해 보면 어떨까요?

총지종에 입교하여 수행하노라면 정송, 정시, 절량, 자성일, 월초불공 등 지켜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종조님께서는 이런 제약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수련하고 지혜를 밝혀 수처작주의 삶을 살도록 여러가지 방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송과 정시는 자신의 생명줄이라 생각할 만큼 중요하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행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지켜야 합니다. 절량희사는 하루라도 굶고 살 수 없으니 하루도 빼지 않고 실천해야겠지요. 자성일과 월초불공 또한 본인의 근기에 따라 유연하게 하면 됩니다. 큰 고민이나 소망이 있어, 이를 부처님법약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수행을 실천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불공에 얽매여서 노예가 된다면 종조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신앙생활의 존재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생활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 중, 희사(정시, 무상희사, 십일희사, 차별희사)는 쉽게 법락을 맛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희사는 고통의 지출을 헛되지 않은, 은혜의 지출로 바꾸어 줍니다. 어떤 일을 목전에 두고 있을 경우, 진리적으로 먼저 실천하고 일을 진행하면 시간이든 노력이든 돈이든 어떤 면에서라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리를 먼저 세워서 도움이 된 어느 보살님의 체험담을 살펴봅시다.

젊은 산모보살님이 둘째아기를 출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엄마 뱃속에서 성별을 알 수 있게 된 터라, 첫째가 딸이고 이번에는 아들이다 보니 양가 부모님이 매우 흡족해하시며 산부인과의 입원실도 특실로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조금 걱정을 하면서, 원만한 출산을 기원하는 서원불공을 하고 병원에 들어갔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입원실에 들어가니, 여느 호텔보다 더 고급스럽고 깨끗한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는 일주일가량의 입원이 필요한데, 보살님은 경과가 워낙에 좋아서 예상보다 며칠이나 일찍이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모보살님은 '전수님과 불공한 덕에 돈도 굳고 결과도 좋고, 이래서 미리 불공을 하라고 하는군요.'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산모보살님은 모든 덕을 제게로 돌렸으나, 저는 다만 종조님의 얼이 담긴 종조법설집을 나침반 삼아 법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준 것 뿐입니다. 하지만 산모보살님의 말을 듣고 보니 어깨가 참 무거우면서도 뿌듯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중생생활에서 진정한 무상희사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공덕이 아닌 허공과 같은 공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삼륜체공한 무상희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에, 희사법을 먼저 세우면 그 행위 자체가 수입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겨 있으니 유연중생들에 대한 보은의 행도 함께 하게 됩니다. 특히 경품당첨과 같은 행운의 수입이 있을 경우, 필히 그 경품의 가치에 준한 희사를 해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 각자님이 동문체육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행사가 끝날 무렵 경품추첨에서 제법 값나가는 자전거가 당첨되었습니다. 평소 추첨 운 이라고는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각자님은 친구들에게 술값도 제법 쓰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원래 갖고 있던 자전거 옆에 경품 자전거를 나란히 세워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경품 자전거를 도둑맞았습니다. 겨우 하루 소유한 셈이 된 겁니다. 황당해 하는 각자님을 보며, 보살님은 "노력으로 얻지 않은 물건에 대해 합당한 희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더니 각자님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세상에 공짜가 없지" 라며 뭔가를 크게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웃에서 떡 한 접시를 가져와도 희사법을 실천하게 되었답니다.

불법을 만난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뜻을 제대로 실천함이 진실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3월의 햇살이 대지를 녹여 만물을 소생시키듯 우리의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여지기를 서원합니다.

약속

지현
자석사 전수

매섭도록 추웠던 겨울도 이제는 자리를 내어 줄 모양입니다.
앙칼진 성깔을 피워대던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새벽불공을 향하는 얼굴에 푸근한 입김으로
하루를 마중 합니다.
조금은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도량을 돌아보니
돌 틈 여기저기 심어진 철쭉이며,
아직은 낯 선 모양의 꽃나무 등이
찬바람을 견디느라 꽤나 초췌해진 색으로
그래도 반가운 눈인사를 건넵니다.
완연한 봄이 되면
이 도량엔 어떤 꽃들이 피어날지, 어떤 꽃들을 심을지
설렘과 기대로 잔뜩 부풀다가
문득, 두고 온 이름들이 생각나 울컥 했습니다.
비좁은 땅에 촘촘히 묻혔다가 봄 한철 내내
자리다툼 한 번 없이 피어나던 꽃들의 이름이……
금낭화, 수선화처럼 내 손으로 심었거나,
할미꽃, 상사화처럼 바람에 실려 온 녀석들,
담벽 모서리 부끄러운 듯 슬며시 피었다 지는 장미꽃이며,
하얀 부추꽃과 달래꽃, 보랏빛 제비꽃, 노란 씀바귀가
하나하나 사진첩처럼 마음에 펼쳐졌습니다.
그 작은 이름들이 새삼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당연함과 익숙함에 묻혀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에야 작은 그 낯빛을 대하는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며 축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돌아보는 시간엔 늘 아쉬움과 후회가 많습니다.
마음의 무게만 한가득 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할 삶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삶이 주어지는 한 기적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소한 기적이 삶의 뜨락을 충만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같은 무게의 쓸쓸함을 더는 지니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햇살 따스한 봄날이 되면
꽃을 심겠습니다.
앙증맞은 꽃잔디 등 봄꽃을 한껏 심겠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다시는 기적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도 효과는 효과
- 행운목

이태용
원예 교육가

우리 주변의 부적들

차 안에 염주, 연꽃, 십자가, 그리고 아이 사진 등 특별한 힘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걸려있다.

'차에 타고 있는 동안 사고가 안 나도록 잘 지켜 주세요' 일종의 부적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것 말고도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몇 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파트보다 한옥이 훨씬 많던 시절, 한옥 대문 위로 흔히 보이는 게 있었으니 바로 삼두매. 몸 하나에 머리가 셋 달린 매의 그림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는 악귀를 삼두매가 막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이나 현관 위처럼 악귀가 들어올 만한 길목에 삼두매 부적을 붙여 놓았지요.

'집 안에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도록 잘 지켜 주세요.'

삼두매가 특별한 힘을 발휘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요즘은 웬만해서는 삼두매 부적을 보기 힘들어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달라진게 있다면 삼두매가 경비업체의 빨간 불빛으로 모습으로 바꾼 것 정도랄까요? 하지만 길을 가다 보이는 빨간 불빛 속에는 삼두매의 부리부리한 눈빛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온다

그 '행운을 주는 나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식물, 바로 행운목이 그 주인공입니다. '행운목'이란 이름이 이 식물의 정식 이름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별명이 있듯 행운목 또한 이 식물의 별칭일 뿐입니다.

행운목의 정확한 이름은 '드라세나 프라그란스'로, 드라세나 속에 속한 식물입니다. 기니,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같은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고향이지요. 그렇다면 이 식물은 왜 원래의 이름을 놔 두고 행운목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식물이 웬만해서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꽃 핀 모습을 본 사람은 정말 운이 좋다고 해야겠지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행복의 나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행운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설입니다. 사실 두 가지 설 가운데 어느 쪽이 정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둘 다 정답일 수도 있고, 둘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무슨 상관입니까? 행운목이란 이름 덕분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지요. 실제로 행운목의 성공은 그 후 많은 원예식물이 별칭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라세나 속에는 행운목 말고도 우리에게 친숙한 식물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로 드라세나 콘신나, 드라세나 데레멘시스,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드라세나 레플렉사, 드라세나 고드세피아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름만 낯설다 뿐이지 실제로 보면 모두 눈에 익은 식물들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집이라면 한두 개씩은 반드시 있는 것들이지요.

이 식물들은 모두 성질이 까다롭지 않아서 원예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실내의 반그늘에 두고 물만 제때 준다면 몇 년이 지나도 싱싱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성장이 아주 빠르지 않는 데다 증산 작용도 활발한 편이어서 실내에 두면 좋습니다.

의학 용어 가운데 '플라세보 효과Placebo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진짜 약 대신 밀가루 같은 가짜 약을 주어도 환자는 정말로 낫는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저는 행운목을 볼 때마다 플라세보 효과를 떠올립니다.

'행운목을 집에 두면 행운이 굴러들어 오고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젠가 정말로 행운이 찾아오면 '역시 우리 집 행운목은 대단해. 진짜 효과가 있는걸' 하고 감탄하면 되겠지요. 행여 행운이 비껴가더라도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닌가 보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행운은 간절히 행운을 기다리는 자에게만 온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이라면 행운목 한 그루 정도 집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물 읽어주는 아빠』

거꾸로보기

소년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

박현희
독산고 사회교사

양치기 소년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 동화 속의 양치기 소년은 어린 나이에 양치기라는 힘든 노동에 투입되어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 생활하는 삶을 강제 당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소년에 대한 학대가 마을 사람들의 묵인 아래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소년이 너무도 외롭고 심심해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소년의 '거짓말'만 문제 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나무라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카펫 생산 노동에 시달리던 파키스탄 어린이가 그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해서 그 어린이를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칙과 도덕을 지켜 나가라는, 그런 비장한 삶을 어린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폭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때때로 거짓말도 쓸모 있을 때가 있다

아이들이 형편없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서연고서성한"(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 대학들의 머리글자를 서열에 따라 읊으면 이렇게 된다)을 이야기할 때,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되겠냐고 물어올 때, 나는 갈등에 빠진다. 그 성적에는 턱도 없는 일이고, 지금부터 죽어라 노력한다고 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실현되지 못할 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입을 다물어야 하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한다. 일종의 거짓말인 셈이다. 기적 같은 일이 때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세상살이이고(좀처럼 일어나지 않으니 기적이라 하지만), 희망을 품은 아이가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목표치의 근처라도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그렇게 애쓰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니?"

정직이 때로 배려 없는 행동이 되기도 한다. 대학 다닐 때 나는 술을 꽤 먹고 다녔는데,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왜 늦었냐"고 묻는 가족에게 "술 마시다 늦었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하여 "너는 듣는 사람들을 위해 거짓말하는 성의도 없느냐"는 핀잔을 누차 듣기도 하였다. 정직하게 대답했던 그 순간의 나에게는 가족들을 안심시켜 주는 성의가 없었던 것이다. 그냥 귀찮아서 바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 미덕일까?

독일의 저널리스트 위르겐 슈미더는『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웅진닷컴, 2011)』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40일간의 유쾌하고 기발한 도전'을 들려준다.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잡히다면 영화 <라이어 라이어>에서 거짓말을 못하게 된 짐 캐리가 속마음을 그대로 내뱉다가 어떤 곤경에 처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슈미더의 진실 실천은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을 불러일으켰고, 상당한 금전적 손해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아내와는 파경 위기를 맞고 침대에서 쫓겨나 소파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슈미더가『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다. 그는 정직의 힘을 재발견하고, '공손한 정직'을 실천하기로 마음먹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진실을 말하려 노력할 것이다. 꼭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엔 상대에 대한 배려를 철칙으로 삼을 것이다." 좋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운명과 시간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힘을 온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해야 할 도덕률 아닐까?

거짓말 안 하는 나는 양치기 소년에 비해 선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나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탈출하고픈 현실이 없었을 뿐이다. 힘든 노동과 외로움에 지친 절박한 현실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정직한 나와, 절박해서 거짓말을 한 소년 가운데 누구를 용인해야 할 것인가?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 속의 진짜 거짓말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는 중요한 거짓말이 숨어 있다. 늑대는 정말 양을 닥치는 대로 잡아 먹을까? 나의 얄팍한 과학 상식에 의하면 야생동물은 자기가 먹을 몫 이상은 절대로 사냥하지 않는다. 한 마리의 늑대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될까? 나의 상식은 아마도 늑대가 양 몇 마리를 물고 서둘러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외친다. 위험을 과대 포장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은 우리 군사 독재 시절이나 요즘의 미국 정부랑 정말 닮았다.

나는 이 얘기가 공포감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하려는 어른들과 백성들이 말을 잘 듣게 하려는 치자治者들에 의해 사랑받았으리라는 데에 과감히 배팅한다.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말세우물

보현
실보사 전수

조선 7대 왕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해 여름, 오랜 가뭄으로 산하대지는 타는 듯 메말랐습니다. 더위가 어찌나 기승을 부렸던지 한낮이면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충청북도 차곡리 마을을 장삼을 길게 늘어뜨리고 지나가던 노승은 목이 말라 어느 집 사립문을 밀고 들어서 물 한 그릇을 간청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아낙네는 길어 놓은 물이 없다며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물동이를 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승은 아낙네의 마음이 고마워 대청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며 아낙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물을 길러 간 아낙네는 감감무소식.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노승은 목이 마른 것도 바쁜 길도 잊은 채 아낙네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나 걸음을 재촉하여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물동이를 이고 아낙네는 돌아왔습니다. 아낙네는 본인의 힘든 것도 잊은 채 얼른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노승에게 떠 올렸습니다. 노승은 물을 마신 뒤 늦은 이유를 물으니 이 마을엔 샘이 없어 10리 밖에서 물을 떠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물을 얻어 마신 감사의 뜻으로 우물터를 찾아주겠다며 사립문을 나서 마을 구석구석을 지팡이를 두드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이른 노승은 큰 바위에 다가서서 역시 지팡이를 세 번 두들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노승이 우물을 찾아준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바위를 파게 시켰습니다. 쉬이 파기 힘든 곳이라 마을 사람들이 망설이며 머뭇거리자 노승은 말했습니다.

"자, 이곳을 파시오. 겨울이면 따뜻한 물이 솟을 것이고 여름이면 차가운 물이 나올 것이요. 가물거나 장마가 져도 물이 줄거나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진지함에 그 말을 믿고 바위를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정들이 밤낮으로 사흘을 파도 물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계속 팔 것을 명했고, 청년들은 내친걸음이니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닷새 쯤 팠을 때, 바위틈 속에서 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곧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흘러 한길 우물 깊이를 채웠습니다. 청년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모여 들어 물을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10리 안엔 물이 귀한 그들에겐 생명의 샘이나 다름없었습니

다. 마을 사람들은 노승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노승이 그들에게 샘의 비밀을 말하기 전까지 서로 부여안고 기뻐했습니다.

노승은 "앞으로 이 우물은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사람들은 웅성이며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이 넘칠 때 큰 변이 생긴다니 쉬이 납득이 되지 않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노승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난 날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 임금을 폐하고 왕위에 오르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그 보다 몇 배 더 큰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우물이 세 번 넘치는 날이면 이 세상은 말세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남긴 노승은 어안이 벙벙한 마을사람들을 뒤로 한 채 홀연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숙원인 우물이 생겨 기쁨도 컸지만 노승의 말이 염려되어 두려움 또한 컸습니다. 우물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세월은 흘렀고 이 우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952년 정초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1910년 1월 중순에 나라가 불운에 휩싸였을 때 물이 넘쳤으며 6.25전쟁 때 우물 아래 1m까지 물이 올라왔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우물을 나라에 대한 충정이라 여겨 자랑처럼 아끼며 부처님 받들듯 위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세를 예견하는 구슬이 있다면 그 구슬을 안고 노심초사한 시도 눈을 떼지 못 하고 불안해하다가 어느 순간 그 구슬에게 온갖 것들을 가져다주며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혜가 있기에 그런 것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볼 것이고 바로 생각할 것이며 바른 행위로 바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위기는 어느 때나 올 수 있으며 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 최대한 준비하고 위기가 왔다면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 극복의 자세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의 편의와 안전만 생각하며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생각하고, 너는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생하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지구촌이 함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우리는 지혜를 발현하여 무지에서 시작된 과오와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려 노력하는 우리 모습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합니다. 너무 쉬워 하찮은 일 같아 쉬이 넘겼던 일들부터 함께 실천해 봅시다. 일회용품 줄이기 / 분리수거하기 / 자동차공회전 줄이기 / 가까운 거리 걷기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등 찾아보면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내가 할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 봅시다. 말세가 된다면 우리에겐 떠난다하여 안전히 피할 곳은 없으니까요.

독자코너

봄, 그리고 초심

경문지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사

3월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 비가 내리고 싹이 트는 우수雨水가 지나,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驚蟄이 코앞이다.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춥고, 일상은 큰 변함없이 흘러가기에 봄이 왔음이 대단히 와 닿지는 않는다. 그러나 봄은 왔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2018년 1월 1일에 굳게 먹었던 올해의 첫 마음, 초심初心을 잘 간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마음먹은 지 두어 달이 된 지금쯤에 한번 점검해보시는 건 어떨까.

나는 학생시절은 물론이고 직장인이 된 지금도 학교라는 공간에 머물게 되면서, 새해의 '초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서야 제대로 고민해보는 듯하다. '일 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인성과 학습능력을 적절히 함양할 수 있는 학급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알찬 수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들을 하면 좋을까?' 등과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는다. 물론 개인적인 다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듯 내 일과와 생각의 많은 부분이 새로 맡은 학급의 아이들에게 향하고 있기에, 질문의 대다수 배경은 학교다.

그리고서 '그 날'이 오기 전, 수많은 고민 끝에 얼추 그 답을 찾으면 아

주 초롱초롱한 눈빛을 장착하고서 마치 처음 발령 받은 듯한 마음으로 학교로 나선다.

개학날이 온 것이다. 재미있는 건, 이런 선생님 못지않은 아이들의 초심이다. 그들도 처음이겠지만, 나 또한 처음 대면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속으로 그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가 없다. 본인들의 표정과 눈빛을 선생님이 모조리 읽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에 자신의 마음을 모조리 써 붙이고 있다.

교실 앞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는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는 '저 선생님의 성격은 어떠실까? 무서우실까?', '선생님은 몇 살이실까?', '아~ 빨리 엄마께 선생님이 누구신지 말씀드리고 싶다.' 선생님 소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 선생님께 잘 보여야겠다!'하며 고쳐 앉는 자세까지. 아이들의 그런 귀여운 모습과 부모님께서 야무지게 챙겨 보내신 첫 날의 알림장, 이름 적힌 색색의 필기도구를 보고 있노라면 나 또한 담임으로서 짊어진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다잡게 된다. 이렇듯, 초심과 초심이 만나는 날은 참 묵직한 상쾌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사 늘 그러했듯, 초심은 그를 찾아온 '익숙함'에게 금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학교를 둘러보며 눈에 들어오는 교실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모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신발이 정렬되어 있던 신발장도 어느새 흐트러진 신발들로 가득하고, 교과서 앞장에 또박또박 정성들여 쓰던 아이들의 글씨는 몇 쪽만 넘어가도 어찌 그리 정처 없이 벽을 타고 흘러 내려가는 빗방울마냥 자유로운지. 이를 하나하나 지도하던 선생님 또한 지적이 줄고, 선생님 책상 위는 하루가 다르게 넘쳐나는 수업 자료들이 흩어져있다.

물론 익숙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친근감이 쌓이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수업 중에 하고 싶었던 활동, 말 못할 고민 등 처음이라 감추었던 생각들을 하나씩 내어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보았다. 파릇파릇한 봄과 아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새로운 마음의 한 줄 을 가져 보겠다고.

'초심의 설렘과, 익숙함의 편안함으로 채워진 우리 반을 만들자.'

이 핑계, 저 핑계로 익숙함에 젖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늘 초심과 함께 하려 한다.

부디 나와 모두의 초심이 매일 아침 '처음' 만나는 하루하루에 은근히 자리하길.

실금이 간 항아리

법일
벽룡사 주교

어떤 사람이 양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다.
오른쪽과 왼쪽 각각 하나씩 항아리가 있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실금이 간 항아리였다.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왼쪽 항아리는 언제나 반은 비어 있었다. 실금이 갔기 때문이다.
반면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찬 그대로였다.

이웃집 사람이 말했다.
"여보게. 그 실금간 항아리는 그만 버리고 새 항아리를 하나 사지 그러나! 물을 반이나 흘리고 다니지 않는가?"
물을 나르던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실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반이나 흘러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하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한번 봐 주게나?"

과연 뒤돌아본 길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했지만, 실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간 왼쪽 길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무성하지 않은가.

"나는 금이 간 항아리가 흘린 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이 길을 보며 즐긴다네"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한다.
자신의 금이간 모습은 참고 지켜보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이 삭막해지는 것은 금이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 때문이다.

금이 좀 가면 어떤가?

뜻 바루기

법사

法 師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法 법 - 법　　**師** 스승 - 사

서유기의 삼장법사三藏法師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법사法師의 이미지이다. 삼장법사는 경·율·론 삼장에 모두 능통한 스승을 말한다. 소설 속에는 삼장법사가 이끌고 있는 세 제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각각 지혜·계율·선정에 있어 이치의 무지와 실천의 결핍을 상징하는 캐릭터들이다.

손오공의 오만함은 반야지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며, 저팔계의 탐욕스러운 행위는 계율을 지키지 않음에서 나오며, 사오정의 불안은 선정을 체득하지 못함에서 일어난다.

법사는 이러한 탐·진·치 삼독三毒의 병들을 불법佛法이라는 명약名藥으로 치료하는 스승이다. 그래서 법사를 약사藥師라고도 한다.

"사람이 위로 홍대弘大[1] 한 법에 능하면 아래로 물사物師[2]가 되므로 법사라 하며 세상의 약사藥師와 같다. 약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므로 약사라 한다"(『嘉祥法華經疏九(가상법화경소구)』)

약사로서의 법사는 이렇듯 세간에 대한 집착된 오온五蘊을 치료하는 자이며, 그 치료약은 오온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설법이다. 초기경전인『잡아함경』에서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명시明示하고 있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만일 색에 대해서 '이것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고, 고요하게 해야 할 법이다'고 설명한다면 이런 이를 이름 하여 법사라 하며, 만일 수·상·행·식에 대해서 '이것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없애고, 고요하게 해야 할 법이다'고 설명한다면 이런 이를 이름 하여 법사라 하느니라. 이런 이가 여래가 말하는 법사니라." (『雜阿含經(잡아함경)』)

1) **홍대**弘大 범위나 규모가 넓고 크다.　　2) **물사**物師 세간의 스승

되짚어보기

합장

合
掌

合 합할 – 합　　**掌** 손바닥 – 장

불교에서 행하는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의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불교의 경례법敬禮法으로 승려와 신자 사이에 행하는 인사법이다. 불타와 보살에 대한 예배의 방법이며, 신의 마음이 불타와 보살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래 합장은 흩어진 마음을 일심一心으로 모은다는 뜻이다. 다섯 손가락을 붙이는 것은 눈·귀·코·혀·피부 등이 색깔·소리·냄새·맛·감촉을 좇아 부산히 흩어지는 상태를 한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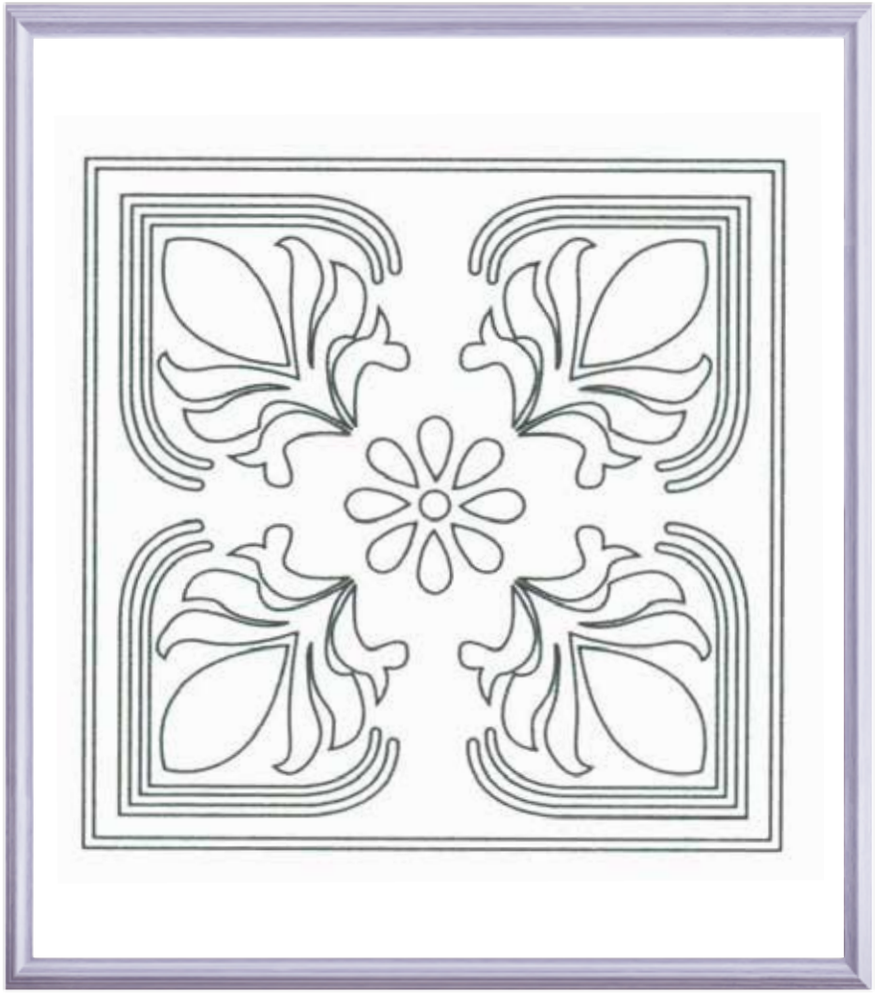
손바닥을 마주붙이는 것은 이 앞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제6식인 의식意識을 모은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보통 두 손바닥과 열 손가락을 합하는 것인데, 손가락만을 합하고 손바닥을 합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거만하고 생각이 흩어졌기 때문이라 하여 꺼리게 된다.

또한, 합해진 손 모양이 가지런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하여 몹시 주의한다. 또한, 이 합장의 자세는 다툼이 없는 무쟁無諍을 상징하는 것으로, 합장한 상태로는 싸움을 할 수 없으며 동정(動靜:움직임과 고요함) 및 자타自他의 화합을 뜻한다.

연화합장蓮花合掌이라 하여 두 손의 열 손가락과 손바닥을 함께 합하여 연꽃봉오리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연꽃의 의미를 상징화한 것으로, 불교의식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합장을 하였다. 그런데 봉오리의 모양을 갖춘 이 상태가 미래불未來佛인 미륵불彌勒佛의 시대에 이르면 활짝 핀 연꽃모양의 합장을 하게 된다는 설이 있다.

또한, 밀교密敎에서는 두 손을 합하는 금강합장은 정혜상응定慧相應(선정과 지혜가 서로 응함)과 이지불이理智不二(본체의 세계와 지혜로운 작용의 세계가 둘이 아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그 공덕 또한 넓고 크고 한량없다고 보고 있다. 불교인은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합장으로 인사법을 삼고 있으며, 불교정신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인천 **전혜영** 님

부산 **김은지** 님

대구 달성군 **전상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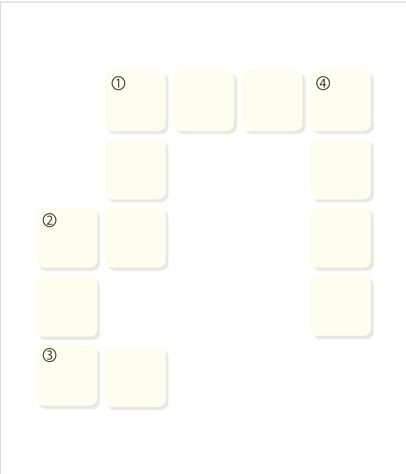
서울 관악구 **김복남**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위드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가로세로 낱말퀴즈!



세로낱말

① 방고래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② 합창을 위한 연주단체
④ 인간人間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네 가지 고통苦痛, 즉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의 고통苦痛

가로낱말

① 아홉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 여러 차례次例 죽을 고비를 겪고 간신히 목숨을 건짐
②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의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불교의 경례법敬禮法 - 76P참조
④ 국악연주에 쓰이는 목관악기. 세로로 부는 악기로서 길이가 짧다는 뜻으로 지공이 뒤에 1개, 앞에 4개가 있다.

정답 구사일생 구들장 생로병사 합장 합창단 단소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 행 일 총기 47(2018)년 3월 1일
발 행 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 자 인 (주)디자인지
인 쇄 동림기획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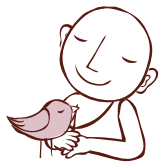
편집후기

첫마음

- 정호승

사랑했던 첫마음 빼앗길까봐
해가 떠도 눈 한번 뜰 수가 없네
사랑했던 첫마음 빼앗길까봐
해가 져도 집으로 돌아갈수 없네

첫마음으로 입학하여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의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났던 설레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가득찰 것이다.
처음 먹었던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질 것이다.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방법은 많다
밝은 미소, 환한 얼굴, 다정한 말
그게 다 보시이다

- 환당 대종사 -